

저장된 페이지 보기

일은증권 경영진 물갈이 새 대표에 홍준기씨

[해럴드경제] 2000-12-16 00면 366자

리젠트그룹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일은증권에 대해 리젠트 측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단행됐다.

일은증권은 16일 오전 임시주총을 열어 유평렬 대표이사를 퇴임시키고 신임 대표이사에 모건스탠리 서울지점장을 지낸 홍준기 씨(42)를 선임했다. 전무에는 오성호 씨를 영입했으며 비상근이 사에 피터 에버랜드 리젠트그룹 부회장을, 사외이사에 이경훈 김&장법 를사무소 변호사를 각각 영입했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리젠트 측이 진승현 게이트로 불거진 리젠트종금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일은증권 측에 자금지원을 요청했지만 현 경영진이 이를 거부하자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임원진은 이사회에서 사퇴하고 집행임원으로만 남게 됐다.

프린트하기

저작권자 ©해럴드경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쇄하기